

한국 고용동향: 취업자는 늘었지만 고용률 하락, 청년·제조업은 부진

2026.08.12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국 7 월 고용동향은 표면적으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뚜렷한 발표다.

7 월 취업자는 1 년 전보다 10 만 7 천 명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올해 1 분기 증가폭(18 만 3 천 명)이나 지난해 연간 증가폭(19 만 3 천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반등'이라 부르기는 이르고, 저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폭 개선된 정도로 봐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취업자가 늘었는데도 고용률은 오히려 0.1%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착시가 아니라 단순 산술이다 — 15 세 이상 인구가 같은 기간 25 만 7 천 명 늘어 취업자 증가분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실업률도 2.7%에서 2.8%로 올라, 7 월 고용시장의 월간 흐름은 이완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이번 둔화를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탈형 악화로 보기는 어렵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보합을 유지했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나 취업 준비생은 오히려 줄었으며, 잠재실업까지 포함한 전체 확장실업률도 하락했다. 즉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흡수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증가한 일자리가 보건복지·공공행정·60 세 이상에 몰려 있고 제조업·건설업과 20 대·40 대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특히 청년층(15~29 세)은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확장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 방향이 모두 일치한다 — 이는 통계적 착시 가능성이 낮은, 흡수 실패에 가까운 신호로 판단된다.

이번 결과는 국면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취업자 증가폭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낮추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인상 근거를 한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재료로 읽힐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보다 가계부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원화 약세 같은 금융 불균형 우려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 이번 고용 지표 하나로 인상 기조 자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반대로 성장·내수 측면에서는 제조업·건설업 동반 감소와 청년 고용 악화가 명확한 악재다. 다만 증가 부문이 정책성 일자리 성격이 짙은 보건복지·공공행정에 집중돼 있고 산업별·연령별 세부 수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민간 부문의 실제 고용 여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60 세 미만 취업자 증감과 산업별 세부 수치가 나와야 이번 증가가 민간 주도인지 공공 주도인지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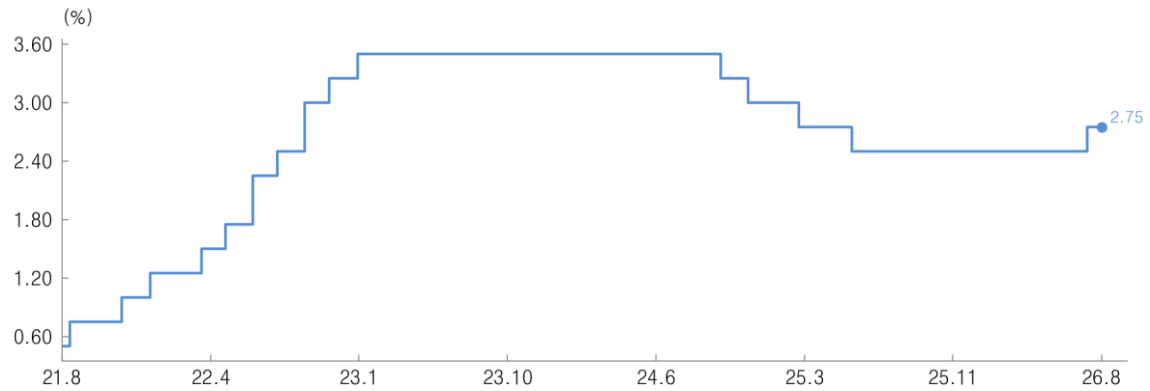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12 (이번)	7 월 취업자 수는 1 년 전보다 10 만 7 천 명 늘었지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고용률은 0.1%포인트 낮아졌고, 계절 요인을 제거한 실업률도 2.7%에서 2.8%로 올라 월간 흐름은 다소 둔화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65.0%로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도 낮아진 점을 보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며 나
2026-07-15	취업자 명목 24.7 만 증가는 전년 약한 기저에서 비롯한 것이며, 제조업 급락(-15.8 만)이 저부가 서비스업 증가(+27.5 만)로 상쇄되는 구성적 악화와 여성·청년층 실업 악화·구직단념 증가는 표면 실업률 안정 뒤 경제활동 이탈 신호를 드러낸다.
2026-06-11	전년동월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실업률 개선으로 보이나, 전월 대비 순환적 악화·임금근로자 감소·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드러내는 진짜 신호는 노동시장 기저 경기 변곡의 초기 신호.

2026 년 7 월 고용동향 핵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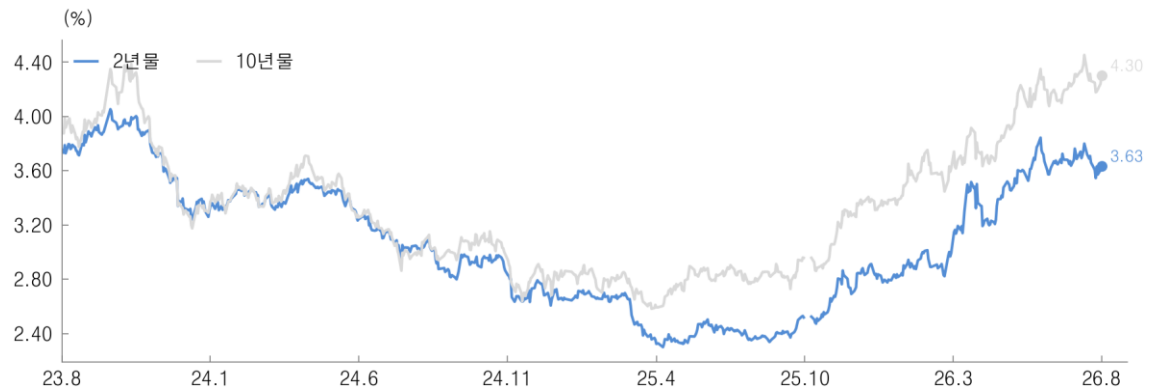
지표	2026 년 7 월	비교값	증감	맥락
취업자	29,136 천명	29,029 천명 (전년동월)	+10.7 만명	1 분기(+18.3 만)·작년 연간(+19.3 만)보다 낮은 증가
고용률(15 세 이상)	63.3%	63.4% (전년동월)	-0.1%p	인구 증가(+25.7 만)가 취업자 증가(+10.7 만) 상회
15 세 이상 인구	46,015 천명	45,758 천명 (전년동월)	+25.7 만명	고용률 하락은 인구구조 산술, 통계 착시 아님
실업자	776 천명	726 천명 (전년동월)	+5.0 만명	경제활동인구 확대(+15.8 만) 속 동반 증가
계절조정 실업률	2.8%	2.7% (6 월, 전월)	+0.1%p	전월대비 기준, 월간 흐름은 이완 방향
실업률(원계열)	2.6%	2.4% (전년동월)	+0.2%p	전년동월대비 기준, 계절조정과 별개로 상승
경제활동참가율	65.0%	65.0% (전년동월)	보합	이탈형 악화 아닌 흡수력 저하 신호
경제활동인구	29,912 천명	29,754 천명 (전년동월)	+15.8 만명	취업자·실업자 동반 증가, 시장 잔류 지속

한국 기준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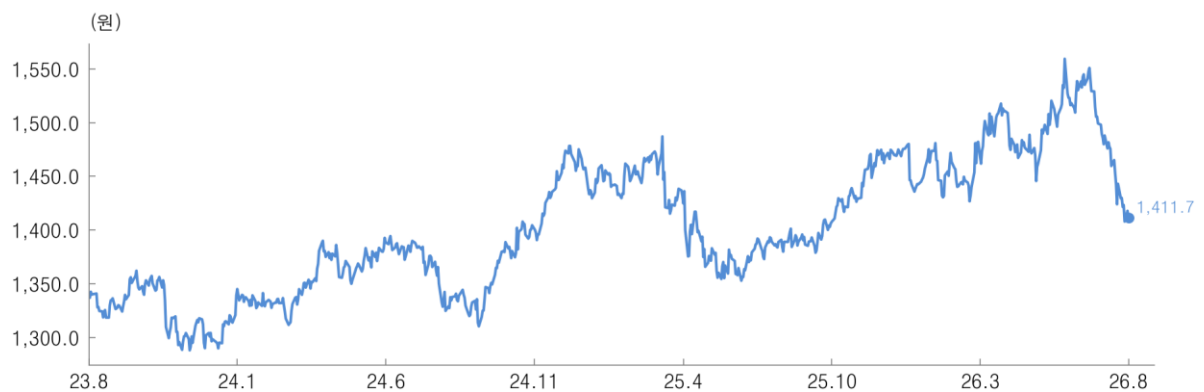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원/달러 환율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